

지역 매아리

정읍시,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정읍시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그간 한 톨이라도 더 많은 재난안전시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역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과 이석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지원과 도움으로 재난에·경보시스템 설치 4억, 정주교 노후 위험교량 정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에·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 관련 정보와 기상특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상반기 지역내 100여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전을 가로지르는 정주교는 현재도 사용 중인 다리다. 하지만 건설된 지 26년이 지나면서 상·하부 구조가 파손된 데다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서 하부받침 보수·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시는 사업확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보수·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는 재난의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이 감소한 경우 교부되는 재원이다. 중점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노후 위험저수지 보강, 노후 하수관거 정비, 재난에·경보시설 정비, 내진성능 보강, 노후 위험교량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재난예방 민간 예찰단 2기 23명 위촉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예방 민간 예찰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재난예방 민간 예찰단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안전사고 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2기 예찰단은 2015년에 구성되어 운영된 1기 예찰단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로이 각 읍·면·동 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위촉식 후에는 운영회의를 열어 예찰단의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토의하고 단원들의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에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위촉식에서 유진섭 시장은 "재난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내 지역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중 문화교류에 '앞장'

고창북고, 中교육부지정 '공자학당' 유치 확정

고창북고등학교(교장 전삼식)는 13일, 중국 교육부로부터 공자학당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자학당은 중국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구인 중국 국가한민(國家漢辦)에서 중국어 및 중국문화 교육 및 보급을 위해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에 둔 교육 기관으로, 중국 정부가 운영비를 매년 20~30%를 지원해준다.

고창북고는 2004년 중국어 교육을 시작으로, 2015년 중국 산동성 조장제3중학과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후남성 후남대부속중학 등 여러 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2016년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MOU체결, 2017년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전북고창분원 개원, 2017년부터 신(新)HSK 2~6급(중국어 공인 급수시험) 고사장 운영 및 전국 단위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 등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자학당 유치를 추진해왔다.



고창북고등학교가 13일, 중국 교육부로부터 공자학당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오는 2019학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복교육청으로부터 중국어 진로중점학교로 유일하게 지정받아 특목고 수준의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고창북고 전삼식 교장은 "현재 고창북고에는 중국어 전용 멀티강의실을 활용한 스마트 수업, 중국 교육부 과련 원어민 교사의 일대일 회화 지도, 신(新)HSK 방과후 수업, 중국 글로벌 리더십 캠프, 중국어

진로 동아리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중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자학당 유치를 통해 중국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앞으로 본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전복, 호남권역의 중국어 교육과 한중 문화교류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는 세계로 나아가는 부안발전의 매우 중요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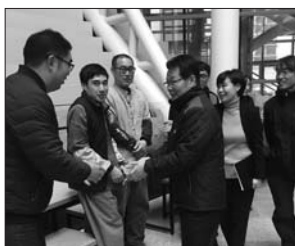
권익현 군수, 연말 현장점검 나서

권익현 부안군수가 연말 현장점검 대상정 기간동안 부안의 역사문화관광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을 잇따라 찾았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줄포갯벌 생태공원, 청지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석정문화관 등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을 방문해 현업근무자를 격려하고 부안관광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는 세계로 나아가는 부안발전의 매우 중요한 시설들"이라며 "우리가 가진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위에 부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를 입혀 2023년 부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전 세계 청소년 5만명에게 꿈과 추억을 심어주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 대상정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사업장과 복지시설 등 32개소를 방문해 청년, 기업인,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발전의 공감대와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의 경제적 부담 줄이고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구간별 요금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를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여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되어

일반인 950원, 초·중·고생 45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구간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구간요금제에 따른 요금 혼선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 간 마찰을 방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구분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외 지역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렴한 요금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정읍시의 교통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단일요금제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시작

변산 해넘이 축제 28일 변산해수욕장서 개최

전국에서 해넘이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변산반도에 2018년 변산 해넘이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사)변산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해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해넘이를 주제로 체험과 상설공연, 이벤트,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축제는 지역발전협의회 회원과 부안군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풍물놀이, 실송어잡기 체험, 공연, 달집태우기, 포토존, 모래 미끄럼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재능 기부로 마련했다.

변산지역발전협의회 김안석 회장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과 2023 세계잼버리 부안 개최가 변산의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산지역발전협의회 역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발전에 의원 모두가 한마음

정읍시의회, 정례회·본회의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산)는 12일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조상중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당면과제와 정읍시장의 역할 ▲의회에서 제기한 의견과 지적사항 처리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저상버스 도입시기 ▲시 방향과 핵심과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방안 ▲태양열·태양광사업의 발전량 및 인허가 관련 ▲구미동 벽화마을 관련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철단과학산업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 실적 등을 질문했다.

이도형 의원은 ▲조직운영분야로 조직관리 실태 및 불합합 영역 ▲교통분야로 업무용택시 차량임차비 개선, 장애인버우체택시 추진결과와 향후계획, 주요아파트 인접 노상주차구역 현황, 버스노선 및 버스요금제 등 ▲환경, 축산분야로 가족사육현황, 가족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축산악취 저감대책,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민속소싸움대회의 동물학대 여론과 향후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어서 보충질의로 김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속소싸움대회의 순기능은 무엇이며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소싸움대회가 시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정읍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정상섭 의원은 ▲정읍문화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원, 문화관, 인물 및 생활사관 등을 포함한 정읍 문화의 전당이라는 복합적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확장, 신속 방안 ▲현행 세대당 1대의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규정을 세대당 2대씩으로 확대하는 입법개정을 촉구하며 SOC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차문제를 집중 질문하였다.

이남희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발달장애인 언어치료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1년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추가인력 및 시설 확보방안과 장애아동 바우처 신규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성(위탁망, 여성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및 대책과 청·장년층 여성의 교육이나 일자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13~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1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